

서비스철학 사례 연구: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지혜의 자산화

김 현 수*

목 차

| | |
|----------------------|------------------|
| 요약 | 4. 건국대통령 지혜의 자산화 |
| 1. 서론 | 4.1 국가경영 철학 |
| 2. 서비스철학과 정치의 본질 | 4.2 국가경영 주제 |
| 2.1 세상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 4.3 국가경영 타임프레임 |
| 2.2 정치의 본질: 선택과 포기 | 4.4 국가경영 전략자산 |
| 2.3 대한민국 건국 상황 분석 | 4.5 통찰력과 용기 |
| 3.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선택과 포기 | 5. 토의 및 과제 |
| 3.1 이승만의 사상과 철학 | References |
| 3.2 자유민주주의 선택 | Abstract |
| 3.3 자유시장경제 선택 | |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및 한국인의 지혜를 자산화하는 연구로서 서비스철학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변화를 이끈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지혜를 자산화하는 연구다. 대한민국이 대륙문명 국가에서 해양문명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비저너리 리더(visionary leader)로서의 지혜를 도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 이를 지켜내고, 또 법제도개혁과 인재육성 등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한 이승만의 지혜를 분석하였다. 정치의 본질을 분석하고 가치 지향 리더가 정치가로서 감당해야 하는 본질적 비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극적 운명을 감수하는 용기와 신념, 독립정신과 반공산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사상, 인간과 세계 그리고 미래를 투시하는 통찰력 등을 분석한다. 무수한 선택과 포기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나는 이승만의 지혜를 분석한다. 이 지혜가 국가의 건국과 발전에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이를 자산화한다. 장기적으로 유용한 지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철학 기반 위에 이승만의 지혜를 자산화하였다. 치열한 대칭 원리에 의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인재육성도 큰 희생을 수반한 선택이었고, 시장경제도 큰 희생을 수반한 선택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도 큰 희생을 수반한 선택이었으므로 서비스철학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탁월한 가치 지향 리더에게서만 발견되는 지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축 지혜, 자유시장경제 구축 지혜, 인재중심국가 구축 지혜 등을 국가경영 철학, 국가경영 주제, 타임프레임, 전략자산 등의 차원에서 자산으로 제시한다. 또한 인류 및 대한민국 사회가 장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가치 지향 리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제시한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서비스철학, 지혜, 대한민국, 이승만

접수일(2022년 4월 11일), 수정일(1차:2022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본 연구는 서비스철학 구현 지혜 사례로서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지혜를 분석하였다. 정치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상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활동의 본질을 먼저 분석하였다. 정치 활동은 본질적으로 선택과 포기 활동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대립되는 가치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활동이다. 중도나 통합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이 아닌 다른 쪽들을 포기하는 활동이다. Ham(2021)이 고대 그리스 비극을 비유하면서 정치는 상반되는 가치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중요한 다른 가치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정치 활동의 본질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결정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분석 틀로서 서비스철학 서비스주의 사상을 사용한다. 인류 전체의 공통 지혜 차원에서 분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의 해방 상황, 해방 시점 이전의 상황, 해방 이후 건국 시점까지의 미군정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시점의 가치들을 분석하고, 정치적 선택과 포기를 분석한다. 상황 분석에 기반을 두고, 건국대통령의 주요 선택과 포기 내용을 분석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국 주체가 소프트웨어적 국가기반을 잘 구축하여 성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소프트웨어적 저변의 성과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무형적 국가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힘이 들고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교육을 통한 자립 시민 양성,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 구축, 자유시장 민간 중심 개방경제시스템 구축 등

의 무형적 국가기반 구축 작업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일이다. 정치가 자신이 그 과실을 거두어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비해 투자해야 할 노력은 매우 큰 일들이고,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과업인데, 대한민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이므로 큰 지혜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국 시점의 매우 어려운 환경과 6.25 전쟁 공산화 위기를 극복하고 초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던 저변의 지혜, 정치지도자의 지혜를 분석한다. 이를 인류 전체 및 대한민국의 지혜로 자산화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먼저 정치의 본질과 정치가의 운명을 분석한다. 정치의 본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립자가 필연인 세상 공통원리를 제시하고, 정치 활동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자들의 치열한 대립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 정치가의 상황을 제시한다. 대립되는 두 가치 중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하는 정치가의 비극적 운명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 시기의 상황도 분석하여 지혜 자산화의 기반 환경으로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선택과 포기를 분석한다. 정치가로서 그의 선택, 지혜와 신념에 의한 선택, 그리고 대립되는 다른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인한 그의 책임 등을 분석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였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방경제를 선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였다. 이러한 선택과 포기의 의미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건국대통령의 선택과 포기를 통해 구축된 지혜를 제시하고 자산화한다. 국가경영 철학, 국가경영 주제, 타임프레임, 전략자산, 통찰력과 용기 등 5가지 차원에서 지혜를 자산화한다.

제5장에서는 토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Kim, 2019a).

2. 서비스철학과 정치의 본질

2.1 세상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정치는 인류사회 중심 활동 중의 하나다. 따라서 정치에는 세상 공통원리가 적용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라고 할 수 있다.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서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19a; 2019b; 2019c). 이러한 공통 진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그림 <Fig. 2-1>과 같이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철학적 구조가 지혜 도출 및 자산화 모델의 기반이 된다(Kim, 2019a).

대립 존재 및 대립 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도(道)가 된다.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대립과 균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이다.

또한 공통진리의 핵심은 나선형 변증법이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세상의 운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의 과정 모델은 아래 그림 <Fig. 2-2>와 같이 나선형 발전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Fig. 2-1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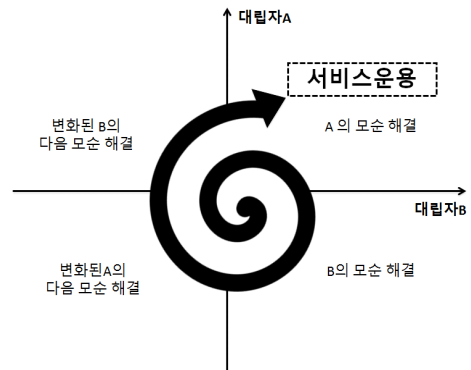


Fig. 2-2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가고 변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서비스철학은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과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공통진리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9b; 2019c).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류의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인류사회의 공통원리를 정치가의 선택과 포기 의사결정에 투영하면 핵심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지혜 도출을 위해 세상 공통원리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리로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지혜를 도출한다.

[공리 1]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정치의 모든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 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mprecht, 1992; Lao-Tzu, 1982; Lee, 2010; Pung, 2017).

[공리 2]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한 이기적인 욕망 추구는 계속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므로 자신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획득 전쟁과 발전의 역사이므로 이기심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Plutarchos, 2019; Samachun, 2017; Lao-Tzu, 1982; Ham, 2020).

이와 같은 공리와 세상공통원리에 의해 정치의 본질을 정의한다.

2.2 정치의 본질: 선택과 포기

세상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에 의해 대립자가 항상 존재하고, 치열하게 상호 대립하고 경쟁하는 현실 세계에서 정치는 행해진다. 정치란 양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다(Ham, 2021). 자신의 지혜와 결단에 의해서, 또 주권자들의 집단 의사결정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

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항상 비극적 운명을 가진다. 다른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책임을 항상 지게 되기 때문이다. [공리 1]과 [공리 2]에 의해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가치나 방향과 대립되는 존재 및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므로, 정치가는 항상 이러한 비극 상황에 직면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대립되는 두 가치 중에서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운명이다. 다른 중요한 하나를 포기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운명이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주인공 안티고네가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오빠의 시신을 방치하면 가족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듯이,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한 다른 하나를 어긴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벌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듯이(Sophokles, 2017), 정치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비극적 운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계획배급경제, 국유화와 민영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등 등의 대립자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하나를 원하는 국민들로 부터의 비난과 모욕을 평생 감수해야 한다. 비난의 정도는 사안의 크기, 대립자 힘의 크기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비저너리 리더인 가치 중심 정치가의 경우 다수결 지향 일반 정치인보다 대립자들에 의한 비난과 모욕의 정도가 훨씬 크다. 링컨처럼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다수결 지향 정치인의 경우는 대립자의 저항이 적고, 책임도 다수 국민들이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정치인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에서는 다수결 지향 일반 정치인이 많게 된다. 즉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지향 정치가는 매우 소수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과 국가정치는 선택과 포기라는 공통 활동이지만, 경영자와 정치가의 운명은 다르다. 경영자는 희극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지만, 정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경영은 개방된 시스템에서의 활동이고 정치는 폐쇄된 시스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경영은 주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활동이고, 정치는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활동인데, 주주들은 자유롭게 기업에 들어 오고 나가는 개방된 세계의 사람들이고, 국민들은 국적을 쉽게 획득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폐쇄된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의 선택과 포기에 대한 책임은 한시적인 것이고, 또 경영성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정치가의 선택과 포기에 대한 책임은 장기적이고 국가경영 성과로도 보상이 어려운 성질의 책임이다. 국가 발전 등의 큰 성과를 추후에 시현했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포기 시점의 감성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국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지속되기 때문이다. [공리 2]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잊기 어렵다. 가치 지향 정치가의 경우 그 비난의 정도는 매우 커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공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또한 정치가 행해지는 국가의 환경도 정치가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해당 국가의 개방성과 폐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민이 활발한 국가이거나 국경의 확장이 있는 개방된 국가에서는 정치가에게 위협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를 들어, 링컨의 경우 미국 통합을 위해 정치하다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았지만, 그 이후 미국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다. 이민이 활발한 개방된 국가이고 영토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링컨 암살 시점의 링컨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후 통합되고 확장된 미국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후대의 미국인들이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건국 상황을 분석하여 선택과 포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3 대한민국 건국 상황 분석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준비기간은 미군정기였다. 이 기간은 극심한 자원부족의 시기였고 정치적 혼란의 시기였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 종전과 동시에 해방은 되었지만, 북위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국군이 진주하였다.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치밀한 계획하에 조기에 공산주의 정부수립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뚜렷한 사전 계획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군정을 시작하였다. 남농북공으로 당시 상황이 표현되듯이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었던 상황에서 남북 분단은 남쪽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남쪽이 인구는 많고 산업시설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동안 해외로 나가있던 많은 동포들이 남쪽으로 귀국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일본에서 110만명, 만주에서 120만명, 북한에서 70만명 등 약 300 만명이 1945-1948년 해방공간에 남쪽으로 유입되어 의식주 모두 절대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군정의 자유시스템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패전한 일본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산업시설의 운영을 위해 북쪽은 철저한 계획하에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억류시켜 운영을 계속함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하며 정상화하였는데, 남쪽의 미 군정은 계획이 없었으므로,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자본과 함께 귀국하여, 그나마도 적은 산업시설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심기술자는 일본인들이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비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귀속재산도 민간 불하를 개시하였는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

로 기업 관계인에게 불하하여 많은 기업들이 경영 능력 부족으로 희생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력시설도 90%가 북쪽에 위치한 상황에서 1948년 5.14 단전으로 남쪽은 절대적 전력부족으로 사실상 암흑 세상이 되었다(Kim, 2013).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미 군정은 행정 연속성을 위해 일본 식민지시대 경찰과 행정인력을 채용하여 군정을 시행함으로써 친일청산을 어렵게 하였고,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활동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여 수많은 정당과 다양한 이념의 정치활동이 난무하는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조선왕조 말기와 일본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매우 다른 여러 사상기반의 한국인 그룹이 다양한 이념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는 혼란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Ham(2020)은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친중 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가지 유형으로 한국인의 원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1945년 해방 시점에서 일부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친중 위정척사파와 친일 개화파는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전세계를 주도했던 공산주의 사상이 매우 우세하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면서 전세계 공산화가 적극 추진되었고, 또 이 시기가 일본 식민지시대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친소공산주의파는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소련이 탄생되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가 부상하면서 형성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도선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남쪽도 공산주의가 주요 중심 세력이 되었다. 남조선 노동당이 주도하여 공산주의 국가 건국을 추진하는 등 가장 먼저 건국을 추진한

세력도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경우 19세기 서유럽에서 탄생한 ‘민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사람의 정체성을 인종(race) 과 민족(nation, ethnicity) 이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찾은 그룹을 의미한다. 정치사상에 무관하게 하나의 민족 국가를 건국하지는 세력으로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친미기독교파는 1880년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를 시작하면서 양성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두가 신 앞에 평등한 기독교 사상과 미국의 민주공화제 정치 사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들은 한국사회를 혁신하는 주류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3개 사상 그룹이 1945년 해방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치열한 대립을 한 상황이었다.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사상에 무관한 하나의 국가 건국이 목표였으므로, 사상적 대립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양자 간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사회주의(6,037명, 70%)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승만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선택과 포기를 하였다.

3.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선택과 포기

3.1 이승만의 사상과 철학

이승만은 1875년 3월생으로 1965년 7월까지 90년 생애를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으로 살았다. 소년기와 청년기는 유학 교육을 받으며 대륙문명에서 성장하

였고, 1895년 4월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해양문명을 학습하고 경험하였다. 이승만의 사상은 1904년 그가 한성감옥에서 저술한 책 ‘독립정신’ 과 그가 독립운동을 위하여 만든 <태평양잡지>의 1923년 3월에 올린 ‘공산당의 당부당’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정신은 국민들에게 독립의 정신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 한글로 쓴 책인데, 자주와 독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독립 역사와 정체를 소개하고, 독립을 위한 6대 실천 강령을 제시하였다(Rhee, 2018). 첫째는 세계와의 소통과 통상의 중요성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업과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새로운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사상이다. 셋째는 외교 중시 사상이다. 외교를 잘하기 위해 공평함과 진실함을 근본으로 삼고 외국인과의 시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당당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는 국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의무를 중시하는데, 누구든지 국권에 손해되는 일이나 말을 하는 자는 친형제 간이라도 곧 원수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을 길러 홀로 설 수 있게 되어 자유 권리를 획득해야 하고 동시에 남의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사상이 이승만의 초기 핵심 사상이다.

이후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확산되자,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했다. 공산당의 평등주의는 모든 차등과 차별을 없이 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적당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부당(不當)한 것은 많은데, 우선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이고, (2)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은 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져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워

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3) 지식계급을 없이자 함은 국민의 우민화 우려가 있고,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은 많은 종교의 장점이 없어져서 인류덕의(人類德義)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은,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러시아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인지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1941년에 저술한 ‘Japan Inside Out’ 책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반일사상을 공고히 하였다(Rhee, 2015).

이승만의 사상을 요약하면, 뚜렷이 독립된 주권국가 사상, 개인의 자주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 적극적인 개방 통상과 신학문 학습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사상, 반 공산주의 사상, 반 일 사상 등이다.

이러한 사상이 그의 정치 철학이 되어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 교육 강조, 외교 강조, 반공 강조로 이어졌고, 이러한 철학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건국준비 시기, 그리고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의 대통령직 수행 기간 중의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선택과 포기 결정 기준이 되었다.

3.2 자유민주주의 선택

정치가로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선택한 것은 그의 운명적 비극성을 상징한다. 영토가 고정되어 있고, 이민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정치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 비극 주인공의 선택보다도 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승만은 그의 사상과 신념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임기간 중 대내적 및 대외적으로 큰 선택

을 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 제도적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형식적 기반으로 전국민 직접선거를 조기 정착시켰으며, 내용적 기반으로 자유 시민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 타파와 격퇴를 철저하게 추진하였고 미국 등 전세계와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확고히 하였다.

제도적 기반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정 국가이며, 국민들이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정 국가라는 것이다.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의 공화정 국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주공화정은 매우 생소한 시스템이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경제 및 지성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를 선택한 것이다. 서구에서 오랜 기간 투쟁하며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단기간에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려고 그는 노력하였다.

형식적 기반으로 전국민 직접선거를 실시하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형식적 토대를 구축해갔다. 최초의 지방의회 시읍면 의원 선거가 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에, 도의원 선거는 1952년 5월 10일에,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도 1952년 8월 5일 전쟁 중에 실시되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많이 경험하도록 선택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권자가 자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정치 체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은 이소노미아(isonomia)다. 가정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자유인들이, 정치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들을 통치하는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이 이소노미아다. 자유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인은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의미하였다(Ham, 2021; Kim, 2022).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체 주권자가 자유인이 되어야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1948년 당시에는 대다수 국민이 자유인과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경제적 자립력이 있는 국민은 소수의 지주나 기업인 뿐이었고, 대다수 국민은 소작인 등 비자유인이었다. 더구나 대다수 국민들이 문맹이어서(해방시점 문맹율 78%)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 시민 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표적 정책이 농지개혁과 교육혁명이었다. 농지개혁으로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경제적 자유인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혁명으로 자주적 시민사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 시민이 될 수 있으므로, 소작농 일반 국민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 분배를 하여 신분제 해체와 동시에 자유 시민 양성을 추진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주 농지를 유상 몰수, 유상 분배 형식으로 불하 하였는데, 매년 소출의 3할을, 5년간 납부로 농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농지개혁은 당시 지주 계급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행한 개혁으로서, 이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이승만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자유 시민 양성을 위해 단행한 선택이 교육 개혁이다.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자신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군정에 의해 시작되었던 문맹퇴치 운동을 가속화하여 1945년 해방 시점에 78% 였던 문맹율을 1960년 5% 이하(1958년 12세 이상 성인 중 문맹율 4.1%) 수준으로 낮추었다. 국가 재정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면서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였다. 민간 교육기관 설립도 장려한 결과 각종 학교의 재학생수와 졸업생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60년 전체학생은 470만명에 달했다(Lew, 2013; 2019). 이렇게 양성된 자유 시민은 이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주권을 행사하는 자주적인 국민으로 성장하였으며, 또 이들은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공업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외적으로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공산침략을 격퇴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확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였다. 집권 초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에 반대한 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을 결국엔 격퇴하였고,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확고히 하였다. 이승만은 1953년 당시 미국의 휴전 추진에 극력 반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미국이 자국의 독립주의 전통에 따라 매우 미온적이라,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로 미국을 압박하여 1953년 8월 가조인후, 10월 1일 공식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조약의 제6조에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라고 무기한 조항을 넣어 이후 대한민국의 항구적 안보와 고속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선택은 그의 마지막 정치인생 순간까지 이어진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 간부 이력이 있는 무소속 조봉암이 30%로 매우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당이 1960년 선거에서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하였고, 이승만은 하야로 자유민주주의 선택 책임을 이행하였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축을 위해 헌법 제정과 개정, 전쟁 기간 중을 포함한 매우 많은 전국민 직접선거 실시, 자유시민 양성을 위한 농지개혁과 교육개혁, 그리고 공산주의 타도와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 등의 가치 중심 선택을 하였으나, [공리 1]과 [공리 2]에 의해 정치가 이승만 본인은 비극적 운명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집권 12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한 세력과 투쟁한 집권 초기, 그리고 6.25 북의 남침 격퇴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다. 반공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되어 추후에 자유와 풍요를 향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상의 희생들로 인해 희생자 및 대립자 국민들과 그 사상적 후예들로부터 [공리 1]과 [공리 2]에 의한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치 지향 정치가의 비극적 운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자원 부족 환경에서 이승만의 눈에 안보이는 소프트웨어적 건국작업의 지난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니, 이런 존경과 대립자의 비난은 비저너리 리더 정치가의 전형적 운명이라 할 수 있다.

3.3 자유시장경제 선택

이승만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사유재산제도 강화였다. 사유재산제도 강화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이 자유롭게 발현되도록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개하도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승만은 시장경제의 중심 가치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였다. 예를 들어, 1953년 2월 15일 화폐개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사유재산을 엄격히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 “이라는 이승만의 철학에 의해 사유재산을 크게 보호하며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했다(Kim, 2013). 또한 일반 국민 사유재산 확보를 위한 농지개혁 성공으로 빈부 격차가 크게 줄어 ‘차별 없는 시대’가 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회의 균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이승만의 두 번째 선택은 자유시장경제로의 개헌과 상공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이었다. 산업개발위원

회를 설치하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명문화하였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와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 의해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자유시장경제체가 공고화되었고, 이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공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1958년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업화 방향 정립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1962)을 수립하였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들에게 장관보다 4배 많은 월급을 지급하며 경제개발계획 입안을 독려하였다(Kim, 2013). 이를 통해 1960년대에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승만의 세 번째 선택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정책이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이 절실하였다. 전국민 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해외 기술 연수를 강화하고(열악한 국가재정 환경임에도 임기 동안 2만명 이상의 인재들을 국비유학 파견),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대학을 직접 설립하고(인하대학), 민간의 교육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해방 당시 19개교 8천명 수준의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수가 1960년에는 68개교 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Lew, 2013).

일제 식민지시대에 양성된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고, 6.25 전쟁 중에 대학생은 징집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선택들은 대립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양성된 인재 등용의 경우, 친일반 민족행위자에 대한 소극적 처벌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정의라는 가치를 일부 희생하면서 국가 발전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국 시점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가 매우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정의의 희생이라는 부담을 본인이 감수하면서도 인재 중시 가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해방의 기약이 없었던 35년간의 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에, 프랑스의 4년 전쟁 중의 독일 협력자 처벌 경우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대립자들에게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선택이었다. 또한 6.25 전쟁 중에 대다수 청년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국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의 징집을 보류한 것은 국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이런 불평등과 부정을 감수하고 국가 핵심 인재 육성을 선택하였다. 그는 ‘조금만 더 견디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전후 복구와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대학 재학생들을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고 하며 비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Kim, 2013). 이것이 이승만의 가치 기반 정치였다. 이 선택으로 인해 대학 및 대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많은 고급 인재가 양성되었고,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고속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지만, 평등과 정의 희생에 대한 책임은 비저너리 리더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의 네 번째 선택은 미국원조 유치와 선도 산업 육성이었다. Lew(2013)는 이승만의 경제 분야 업적에 대해 ” 미국의 원조자금을 민간기업에 값싸게 배분하여 ‘수입대체산업’ 에 투자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의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다 ” 고 했다. Kim(2013)은 송인상의 회고를 통해 ” 이 대통령은 늘 미국의 원조자금은 한국 국민의 피의 대가인데 이것을 일본산 완제품을 들여와 소비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기회 있을때마다 더 많은 원조자금을 공장건설에 투자하라고 말하곤 했다

‘고 하였다.

이승만의 다섯 번째 선택은 에너지기반으로서 원자력 산업 육성 선택이었다.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 확보는 경제발전의 근본 기반이다. 미래기술인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승만은 1956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었고, 젊은 물리학자들을 국비 연수요원으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파견하였다. 1956년 1기 유학생 이후 4년 동안 8차에 걸쳐 150명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왔고, 이들이 1959년 한국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세웠고 7월에 연구용 원자로 트리거마크 II 건설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되었고 이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이 원자력 투자를 결정한 1956년은 1인당 GDP 41달러 수준이며 그가 81세를 넘은 시점이었고, 대한민국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시점이 최소 20년 이후 그의 사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용기와 시대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발전 혜안을 보여주는 사례다(Yoon, 2011). 그 결과 저렴한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었다.

4. 건국대통령 지혜의 자산화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국가로 건국하면서 이승만이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들과 그 과정에서의 지혜를 자산화한다. 국가경영 철학, 국가경영 주체, 타임프레임, 전략자산, 통찰력과 용기 차원에서 지혜를 도출한다.

4.1 국가경영 철학

대한민국은 지난 수천년간의 대륙문명 중심 국가

에서 1948년 새로운 해양문명을 강조하는 국가로 건국되었다.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 기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중국 대표 철학자 Pung(2017)의 동양(중국)철학과 서양철학에 대한 비교 분석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대비할 수 있다. 대륙문명은 수직적이고, 해양문명은 수평적 문화가 강하며, 서양은 독립 개인이 강조되어 왔고, 동양은 가족 등 공동체가 강조되었다. 동양은 토지에서 생산물이 나오는 농업경제인데, 토지를 획득하려면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왕으로부터 허사 받아야 하므로 충과 효 문화가 강조되고 따라서 수직적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서양은 그 철학적 뿌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는 경작 가능 토지가 협소하고 바다가 인접해 있어 해양 무역을 통해 번성하였다. 따라서 상업과 추상 개념이 발달하였고, 이런 수평적 문화가 현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차이는 아래 표 <Tab.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 4-1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 동양/대륙문명 | 서양/해양문명 |
|----------------------|-----------------------|
| 주로 내륙국 | 주로 해양국 |
| 농업경제 위주 | 상업경제 위주 |
| 수직사회 중심 (효, 충 강조) | 수평사회 중심 (독립 개인 강조) |
| 실물개념 강함 | 추상개념 강함 |
| 군주제 전통 | 민주정 전통 |

(Pung(2017) 참조 저자 구성)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은 대륙문명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독립된 개인들의 수평사회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민족이 중시되는 수직사회라고 할 수 있었다. 개방보다는 폐쇄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중시 사상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도 취약하고 평등을 크게 선호하는 상황이었다. 조선왕조에서의 신분제 불평등 사회를 오랜 기간 경험하였기 때문에 평등 선호가 강하였고, 또 20세기 전반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평등사상의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즉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대다수 한국인은 자유와 개방 철학보다는 평등과 폐쇄 철학에 크게 경도된 상황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두 대립자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야 치열하게 경쟁하고 개선하면서 국가 발전이 있게 되므로, 이승만은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의 대한민국 사상지형을 대칭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일시적 불균형을 과감히 선택하고 자유와 개방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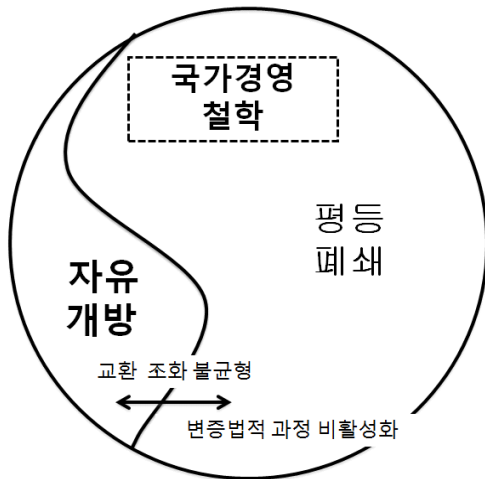


Fig. 4-1 Existing Philosophy of Korea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건국의 기초 요소 조건 6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 2개를 자유에 할당하였다. '민권과 개인 자유의 보호'와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 '이라는 2 항목을 크게 강조하였다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2). 나머지 4개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서로 이해 협의, 동포 생활 개선, 경제적 원조 등 건국시의 대표적인 국가 현안 과제였으니, 그가 '자유'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유인은 개방된 독립적 주체이므로 기존의 중심 개념이었던 민족,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국가운영 철학은 당시 가족과 평등 문화에 경도되어 있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민족주의자들과는 본질 철학이 달라 많은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에 의해 정립된 자유와 개방 철학이 국가경영 철학으로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유와 개방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자유와 개방의 과실로서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철학은 자유와 평등의 팽팽한 최적 균형 상태를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정부와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이승만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지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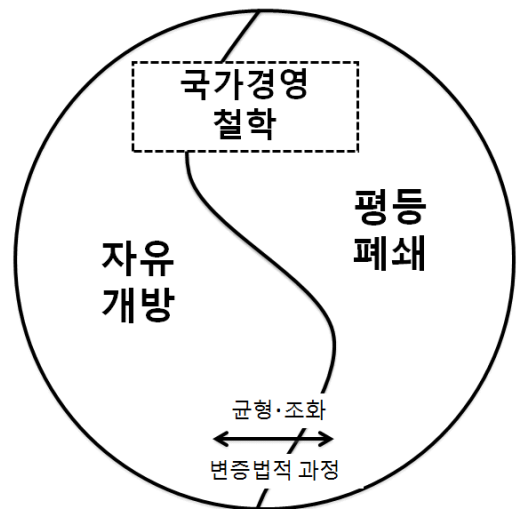


Fig. 4-2 New Philosophy of Korea

4.2 국가경영 주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오랜 조선왕조시대의 영향으로 대다수 국민이 대륙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충과 효가 강조되는 공동체 중심 수직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자유로운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주체가 되는 수평 사회가 아니고, 가족이나 민족 등의 공동체에 크게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나라 가족'이라는 의미의 국가(國家)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경영 주체는 '개인' 단위보다는 '가족, 공동체' 등이 우선시되는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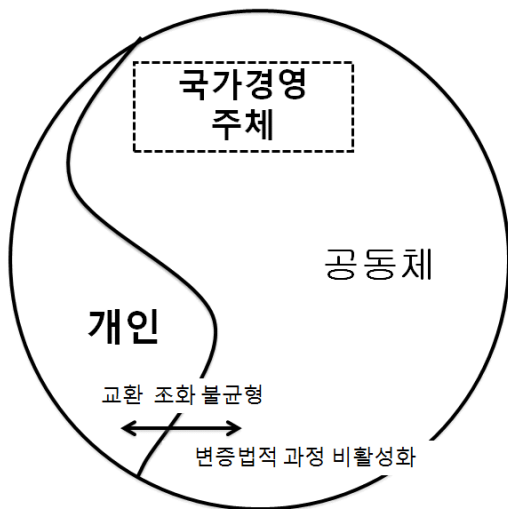


Fig. 4-3 Existing Owner Model of Korea

위 그림과 같이 가족 등의 공동체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개별 개인이 국가 운영의 한 축이 되는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일시적 불균형을 선택하였다. 즉 신분과 성별 재산 학력에 무관하게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동등하게 가지는 개인이 주인인 나라로의 건국을 선택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소유 재산이 거의 없어 자유인이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다수 국민이 문맹이어서 국가의 방향이나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건국과 운영을 선택한 것이었다. 새로운 국가의 주체가 되는 개인은 독립된 자유인 시민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천년 한국 역사에서 매우 생소한 개념이며, 또한 동양사회 전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개인을 국가의 주체로 선택하고 성숙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주의가 처음 발달된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는 개인은 '노동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Ham, 2021; Kim, 2022). 건국 당시 대한민국 상황은 '노동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은 극소수였고, 이들 해방된 소수마저도 과거 오랜기간 대륙문명의 영향으로 '동등한 자격의 독립적인 개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인 주권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더구나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인'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을 선택한 것은 커다란 결단이었다.

자유로운 개인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 이승만은 재임기간 중 여러 선택을 하였다. 최소한 수십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서 제시한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유상 민간 불하는 자유로운 개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국가 운영 주체인 개인들이 자기 소유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여 자유 개인이 양성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954년의 제2차 개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명문화하여 민간 경제의 활성화와 경제적 문제로부터 해결된

자유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문맹퇴치 작업과 전 국민 의무교육제와 사학 육성 정책을 시행한 것도 자유로운 개인 육성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와 같은 선택과 노력의 결과, 건국 후 12년 만에 자유로운 개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국가 운영의 주인임을 보여준 4.19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였던 자유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은, 사적 소유 증대와 개인 의식 증대, 교육 진흥을 통한 개인 자립 역량 증대를 강하게 추진한 결과 상당히 빠른 시간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골격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저너리 리더 이승만의 지혜와 용기가 대한민국의 귀중한 지혜자산이 될 수 있다. 비저너리 리더의 용기있는 선택에 의해, 대한민국은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이 개인과 공동체가 국가경영 주체로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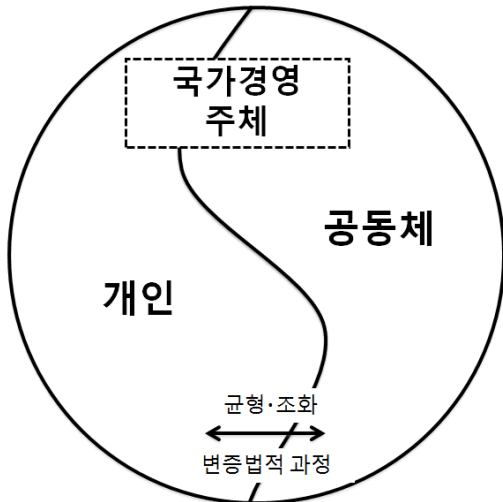


Fig. 4-4 New Owner Model of Korea

하지만 이러한 비저너리 리더의 용기있는 선택은 공동체 중심 사고를 하는 상당수 대륙문명권 국민들로부터 오래도록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반도

의 북쪽이 개인이 소멸되어 있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또 상당수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리 민족끼리’ 라는 민족 중심 의견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지금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공화국 건국 선택은 얼마나 큰 도전이었고 신념의 선택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3 국가경영 타임프레임

건국 당시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였다.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시설의 대부분은 38도선 이북에 있었고 남한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다(Kim, 2013). 장기 연구개발 투자나 우회생산 인식 등이 취약하고, 단기 농업 경제에 익숙해진 상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 타임프레임은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이 단기적 관점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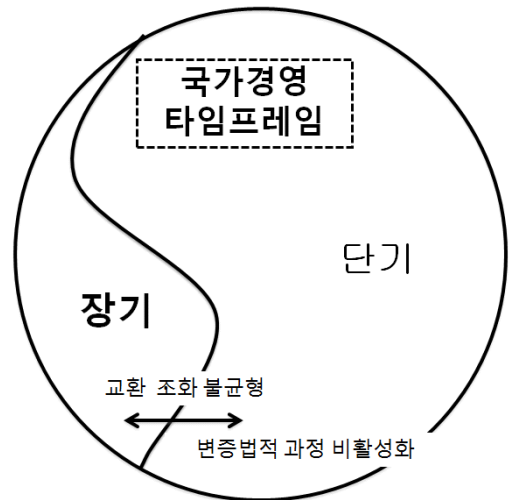


Fig. 4-5 Existing Timeframe of Korea Operation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장기 타임프레임 강화를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을 일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을 선택하였다. Kim(2013)은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원조자금으로 행정부 관리나 기업체 사원, 이공계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대거 유학을 보냈다. 이들을 미국, 서독, 영국 등으로 연수와 유학을 보낸 것은 모두 기술원조자금 덕분이다” 라고 밝혔다. 당시 당장의 식량난으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식량 구입에 쓸 수 있는 원조자금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과실이 얻어지는 기술자 교육이나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더구나 최소 20년 이후에나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것 등은 장기적 타임프레임으로 국가를 운영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교육 투자 강화, 전국민 6년 의무교육, 대학 육성, 해외 연수 등 인재 양성, 상공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 원자력 발전 투자 개시 등 본인의 사후 및 다음 세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 투자를 강하게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은 아래 그림 <Fig. 4-6>과 같은 장기적 운영 시각과 단기적 운영 시각이 균형있게 조화된 국가 운영 타임프레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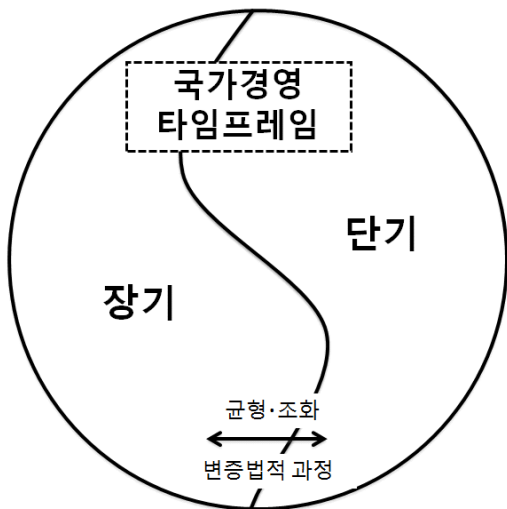


Fig. 4-6 New Timeframe of Korea Operation

그 결과 중화학 공업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각 산업이 고르게 발전된 균형 있는 경제 구조와 고도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4.4 국가경영 전략자산

국가경영을 위한 전략자산 선택 관련해서는, 건국 당시 대다수 한국인은 대륙문명권에 있었기에 유형 자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Fig. 4-7>과 같이 국가경영 전략자산으로서 토지나 자본(돈) 등의 유형자산이 지식 등의 무형자산보다 더 중요한 자산으로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유형자산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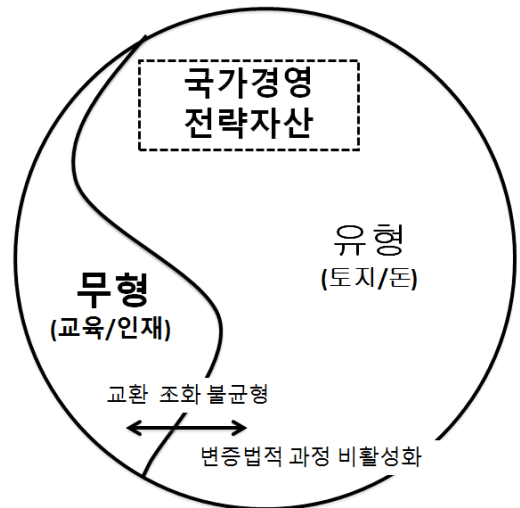


Fig. 4-7 Strategic Asset for Korea Operation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이승만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강화를 선택하였다. 1948년 한글 전용법을 실시하여 한글을 자산화하였다. 이는 청년 시절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한글로 저술하였듯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국민 소통 언어의 중요성

을 인식한 선택이었다. 또한 기독교 강화를 선택하고, 화염 중심으로 불교를 혁신하였다. 특히 기독교를 정신자산으로 하여 프로테스탄트 칼뱅사상으로 자본주의 문화의 성숙을 기획하고, 거짓말이나 나태 문화 타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실물 개념이 강한 동양적 전통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한국인에게 추상 개념과 무형 가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면서 국가 운영을 하였다. 그 결과 성실한 근문문화가 구축되고, 우수한 인재가 대량으로 양성되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6.25 전쟁 중의 대학생 징집 보류 결정 등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한 신념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아래 그림 <Fig. 4-8>과 같이 유형자산은 물론이고 무형자산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최적 균형 상태가 구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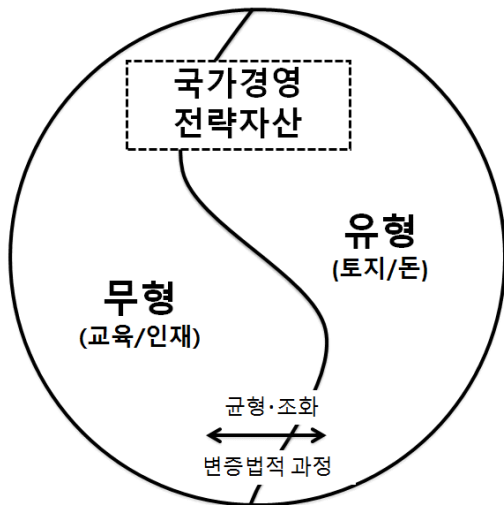


Fig. 4-8 New Strategic Asset for Korea Operation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선택은 오랜 기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승만은 오래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형적인 작업에 집중하였는데, 그 부작용은 당대에 나타났고,

그 성과는 후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5 통찰력과 용기

대한민국 차원의 지혜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통찰력과 용기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뒹어놓고 뭉칩시다”라는 이승만의 1945년 귀국 메시지(Lee, 2008)는 해방 당시 상황에 대한 통찰이고 또 지금도 한국인에 전체에 대한 통찰 메시지이다. 또한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두 번 다시 종의 명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는 그의 90년 생애 중 20대에서 80대까지 60년 이상을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과 나라를 잃고 무국적자로 떠돌던 과정과 나라를 다시 찾고 나라를 다시 세운 전체 과정에 걸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냈기에 할 수 있는 유언이었다.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분투하고, 나라를 잃은 후 다시 찾으려고 분투하고, 그리고 타력에 의해 해방이 된 후 독립된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또 분투하고, 끝이어서 공산침략에 의해 다시 나라를 잃을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다시 지킨 나라를 복구하려고 분투한 그의 70년 가까운 분투의 시간은 보통사람에게는 있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귀중한 경험 자산이고, 그 분투의 경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은 지혜가 그의 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지혜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시절에 저술한 독립정신 책에서 제시한 그의 시장경제 사상과 자유 사상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었다. ‘세계 각국이 한 이웃이 되어 교류하는 가운데 평균한 이익을 다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통상의 이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제 힘껏 벌어서 제 재주껏 공부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에 제약 을 두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스스로 활발한 기운이

생겨 풍속이 날마다 변하며 활력이 나날이 자랄 것이니, 불과 몇십 년 안에 나라는 부강하고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유를 중히 여기는 것이 어찌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Rhee, 2018), 1920년대에 이미 '공산주의의 당부당' 으로서 공산주의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지적한 것, 'Japan Inside Out' 으로 일본의 본성과 태평양 전쟁 예견, 동구권 공산화를 미리 분석한 좌우합작 불가 예견 등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시대를 앞선 통찰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도를 포함하는 해양주권선언(1952.1.18)을 하고 이를 강제로 실행한 일, 휴전협정 반대를 위해 반공포로를 석방한 일(1953.6.18) 등은 대단한 용기를 발휘하여 오래도록 대한민국의 이익에 기여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그 특사인 닉슨을 북진통일 주장과 편지로 다루는 능력,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신을 지키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한민국에 매우 유리하게 체결하도록 한 일(Shin, 2017) 등은 이승만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무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에 우뚝 세우게 만든 이승만의 지혜이자 대한민국의 지혜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3.15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한 것도 큰 용기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네루는 1964년 사망시까지 총리하였고, 딸과 손자 등 가족들이 권력을 이어갔으며,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크도 사망시까지 15년간이나 대통령 재임한 것을 보면 건국한 초대 국가 수반의 지위는 남다를 수 있는데, 이승만이 자신에게 닥칠 큰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하야한 것은 안전 욕구와 [공리 2] 인간의 이기심 본성을 고려할 때 큰 용기였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생애기간 중에

무수한 오판과 실수를 하며, 이승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승만이 보여준 다수의 통찰과 용기는 대한민국이 자산화해야 할 지혜라고 할 수 있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혜를 자산화하는 사례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그 첫 연구로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지혜를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여러 정치적 결정들로 인해 그가 겪어줘야 했던 비극적 운명을 분석하고 이를 지혜로 자산화하였다.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으로서 국군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한 벤 플리트는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그리고 애국가 중의 한사람' 이라고 하였다(Oliver, 2008). 20대에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여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이후 여러 논문과 글로 학자적 면모를 보였고, 자원 절대 부족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방해까지 이겨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정치가이고, 또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였으며(Rhee, 2010),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전파한 정치지도자로서 그를 높이 평가한 듯하다. 나라 잃은 오랜 기간 무국적자를 고집하였고, 전생애를 통해 조국에 대한 애정을 실천한 애국자를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 이승만과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모두 깊이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도 드물고, 나라를 잃고 나라를 찾아 새로운 나라로 건국하고, 건국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한 사람도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역사와

철학 사상, 인간 본성 및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이승만을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국의 어려움, 특히 거의 아무런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반대를 이겨내면서, 또 내외부의 강한 저항 세력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신념에 의한 국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반면, 그러한 과정에서의 오판과 실수는 눈에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자가 뚜렷하였던 건국시점의 대한민국에서, 또 각기 이기심이 무한한 인간의 본성상, 국적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선택한 정치가는 공산주의자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가치 지향형 정치지도자가 깊어지게 되는 비극적 운명이다. 다수결 지향형 정치지도자에 대한 비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운명을 감수하는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가 나와야 국가가 융성한다. 이러한 지혜를 자산화하고 전수해야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

이승만과 타 국가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부흥을 이끈 아데나워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독 아데나워 집권시기(1949-1963)는 전쟁도 없었고, 서독이 독일 국토의 3/4이나 차지하고 있어 환경이 좋았고, 더구나 미국 등의 지원도 우선되었으나, 대한민국은 건국 직후 처참한 3년 전쟁을 이겨내야 했고, 미국이 번번이 소련에 타협하며 방해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건국하고 운영해야 했고, 한반도가 중간이 잘려 산업붕괴와 단전 등으로 생명 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서독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비극적 운명의 존재다. 왜냐하면 닫힌 시스템에서의 경영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대립자가 존재하고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정치인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에서 소외된 대

립자가 있기 마련이고, 국적 이동이 거의 없는 닫힌 시스템이므로 피해를 받은 대립자의 이기심에 의한 비난은 평생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자유’로 인해 정치가에 대한 비난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더욱 크고 장기간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치기반 정치가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다. 가치 기반 정치가의 경우 장기 비전을 구현하는 작업을 중시하며 다수 대중과 반대되는 방향의 선택을 하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전이 원대할수록 더욱 비극적인 운명이 될 수 있다. 이승만의 소프트웨어적 작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을 한 이후 대통령들은 난이도와 소요 시간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여 덜 비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큰 비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신념에 의한 선택으로 건국을 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발전시킨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지혜 자산은 대한민국이 크게 고양할 필요가 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약점, 사업 실패, 하와이 풍파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한 강고한 투쟁, 하이퍼 인플레이션, 집권 후기의 사람에 대한 오판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가 분투한 한평생, 그리고 그의 사상과 그의 선택들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혜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전수할 필요가 있기에 그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다 깊이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Ham, Jaebong (2021), *What is Politics*, H Press (함재봉(2021), 정치란 무엇인가? H 프레스)
2. Ham, Jaebong (2020), *Making Korean I, II, III*, H Press (함재봉(2020), 한국사람 만들기 I, II, III, H

- 프레스)
3. Kim, Hyunsoo (2022),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2, No.1, pp.1-24 (김현수(2022),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서비스연구*, 제12권 제1호, pp.1-24)
 4.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 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5.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6.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7. Kim, Yongsam(2013), *Syngman Rhee and Entrepreneur Era*, Book and People (김용삼 (2013), 이승만과 기업가시대, 북앤피플)
 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법제처 (2022),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9. Lamprecht, S.P. (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 Co., (램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0.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1. Lee, Hanwoo(2008), *Woonam Rhee Syngman build Korea*, Haenaem Publisher (이한우 (2008),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해냄출판사)
 12. Lee, Kidong(2010), *Lecture on The Book of Chang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3. Lew, Young Ick(2019), *Life and Founding Vis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Chung Media (유영익(2019),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비전, 청미디어)
 14. Lew, Young Ick(2013),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Iljogak (유영익(2013),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15.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22), PRESIDENTIAL ARCHIVES, 1948.8.15 Presidential Address (행정안전부 (2022), 대통령기록관, 1948년 정부수립 기념연설문)
 16. Oliver, Robert T.(2008), Ilyoung Park T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1942-1960) - A Personal Narrative*, Dongseomunhwasa (로버트 올리버(2008), 박일영 옮김,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동서문화사)
 17. Rhee, Syngman(2018), Park, K. B. Ed., *Independence Sprit*, Bibong Publisher, (이승만 (2018), 박기봉 교정, 독립정신, 비봉출판사)
 18. Rhee, Syngman(2015), Kwanghyun Ryu Tr., *Japan Inside Out*, Bibong Publisher (이승만 (2015), 류광현 옮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출판사)
 19. Rhee, Francesca Donner(2010), *Francesca and 6.25 Diary*, Kiparang (프란체스카 도너 리 (2010), 프란체스카의 6.25 난중일기, 기파랑)
 20. Plutarchos (2019), Lee, S. K. Tr., *Bioi Paralleloi*

- Modern Intellect. (플루타르코스(2019), 이성규 역,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 I, II, 현대지성)
21. Pung, W. R.(2017), Park, S. K. Tr., *The History of China Philosophy*, Kkachi. (풍우란(2017),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22. Samachun(2017), So, J. S. Tr., *Samachun Saki 56*, Modern Intellect. (사마천(2017), 소준섭 역, 사마천 사기 56, 현대지성)
23. Shin, Chulsik(2017), *Testimony by Hyunhwak Shin, Medici* (신철식(2017), 신현확의 증언, 메디치)
24. Sophokles(2017), Chun, B.H. Tr., *Sophokles' Tragedy*, Soop (소포클레스(2017), 천병희 역, 소포클레스 비극전집, 숲)
25. Yoon, Sukchul(2011), *Right Way of Life*, Wisdom House (윤석철(2011), 삶의 정도, 위즈덤하우스).



Hyunsoo Kim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Case Study on Service Philosophy : Assetization on Wisdom of 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yunsoo Kim¹⁾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ervice philosophy as a study to capitalize on the wisdom of Korea and Koreans. This is a study that capitalizes on the wisdom of the founding president who led civilization changes in Korea. Wisdom as a visionary leader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Korea's development from a continental civilization to a maritime civilization was derived. We analyzed the wisdom of the founding president, who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new identity as a liberal democracy and protected it, and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leap into an advanced country through legal system reform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irst, we analyzed the essence of politics and presented the essential tragic nature that visionary leaders must bear as politicians. We also analyzes his courage and belief to accept a tragic fate, the insights on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ti-communism, liberal democracy and the future. We analyze the wisdom as a visionary leader that is consistently revealed through countless choices and decisions to give up. It suggests that such wisdom is essential for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a nation, and the wisdom need to be assetized. It needs a solid philosophical foundation to become a useful wisdom asset in the long run. In this study, Syngman Rhee's wisdom was assetized on the basis of the service philosophy. This is because it is wisdom based on the fiercely symmetrical balance principle. Human resource development was a choice that entailed great sacrifice, the market economy was a choice that entailed great sacrifice, and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was also a choice that entailed great sacrifice,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wisdom that fits the essence of the service philosophy. It is wisdom found only in outstanding visionary leaders. We present the wisdom of building a free democratic country, the wisdom of building a free market economy, and the wisdom of building a talent-oriented nation as assets in terms of national management philosophy, national management owner, time frame, and strategic asset. It also suggests that visionary leaders are continuously required for the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nkind and Korean society.

Keywords: Servicism, Service Philosophy, Wisdom, Korea, Syngman Rhee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